

함께 만들어 가는 인권, 전북으로부터!

'2023년 전라북도 인권문화축제' 7일 개막

유튜브 '전북인권공감'으로 생중계 예정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을 주제로 오는 7일부터 2일간 '2023년 전라북도 인권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청 공영장에서 대면 개최로 진행하고 동시에 유튜브 채널 "전북인권공감"을 통해 생중계되며,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인권증진 문화 확산의 장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7일 개회식, 인권퍼포먼스, 인권콘서트, 8일 인권영화, 인권강연이 있으며, 부대행사로 기후위기와 인권 관련 전시, 인권단체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자 전시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인권분야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

업의 문화공연을 축제와 연계 추진하고, 13개 인권 기관·단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전라북도와 민간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김관영 도지사 개회사, 김양이 전라북도 인권위원장 환영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과 김이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축사가 있으며, 2023년 인권정책 추진 유공자 12명, 인권작품 공모전 우수작 12점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진다.

이번 축제는 올해로 75주년이 된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여 도민 30여명이 세계인권선언 30개 조문을 낭독하며, 빛과 미래의 감성예술인 샌드아트와 창작미술을 접목하여 인권 존중의 메

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사람이 사는 미술관의 저자인 박민경 작가가 피카소, 고흐 등의 작품을 비롯한 명화를 통하여 '인권의 눈으로 그림을 보다, 읽다,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인간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다.

또한, 2017년 전주 LG U+ 현장 실습생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다음소회' 상영과 사건당시 활동했던 청소년 인권활동가의 생생한 이야기도 준비했다.

이울러, 인권에 대해 저명한 오찬호 작가를 초청, '일상속 차별과 혐오의 씨앗들'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희망을 전달하고 공감하는 시간도 갖는다.

도내 문화예술단체인 블레싱(전주 소재), 가온스토리클래식(익산 소재) 2개 단체의 '음악으로 배우는 세계 인권여행 콘서트'와 '일본 위안부 인권

1인극과 음악 연주'로 인권과 문화를 결합하는 의미 있는 시도를 했다.

이밖에, 일상생활에서 생긴 폐품이나 잡동사니를 소재로 이용하여 기후위기와 인권과의 관계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정크아티스트 안선화 작가의 전 시작품과 체험도 이루어진다.

또한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2023년 전라북도 인권작품 공모전 우수작과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인권작품 공모전 우수작 모니터(UCC)를 4일부터 8일까지 삼시 전시한다.

정호은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2023년 전라북도 인권문화축회에 다양한 인권문화행사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며, "서로를 존중하며 공감하는 인권전북을 만들기 위해 도민의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조사료, 전국 최고 품질 입증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 '부안 백산미래축산' 최우수 선정

전북도 조사료가 2023년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부안 백산미래축산농조합법인(대표 유화연)으로 올해 출품한 옥수수사일리지(조단백질, 냄새, 색깔, 촉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조사료 품질경연대회는 전국 조사료 경영체에서 생산한 국내산 사료작물의 품질을 평가하는 대회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 및 국립축산과학원이 주관한다.

대회 16년째를 맞아 올해는 전국 조사료 경영체에서 46점의 사일리지가 출품되어 최우수상 1점을 포함한 9점이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총600만원(최우수상 150만원)의 상금 및 품질인증서가 수여됐다.

전북도는 올해 조사료 재배면적

이 3만1,000ha로 작년 2만4,000ha보다 7,000ha 늘어났으며 생산량 또한 올해 55만톤으로 작년보다 11만톤 증가한 성과를 이뤄냈다.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는 전북도가 추진하는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계획 16대 핵심과제 일환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축산업이 지역과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사일리지 제조, 기계장비, 종자구입, 품질관리 등 13개 사업에 국비 218억원을 포함 총 705억원을 지원해 늘어난 재배면적의 원활한 생산과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품질면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증명되며 성장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전북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2023 금융혁신 창업기업 성과교류회 성황리 개최

성과발표와 사업 모델 공유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영재)가 5일

금융혁신 빅데이터센터에서 금융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된 12개사 및 금융혁신 분야 전문가와 함께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전북도가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 및 금융혁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과 '금융 빅데이터 스타트업

활력지원'은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 공간 제공,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금융혁신 분야 창업기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선정기업의 주요 사업 아이템과 현장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홍보부스 전시, 성과발표회, 네트워킹 등이 진행됐다.

먼저, 선정기업 성과발표회에서 기업들은 올해 성과 발표를 비롯해 사업 아이디어 및 경영 노하우 등을 공유함으로써 이후 사업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올해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금융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도화하였으며, 신규고용 39명, 작년대비 매출액 8억5,000만원이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2023년도 선정기업인 주식회사 모핀은 지난 7월 TFS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주식회사 아이쿠카(대표 방남진)는 NH투자증권 및 인포뱅크로부터 8억원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다.

또한, 전북테크비즈센터 1층 로비에 선정기업 홍보를 위한 부스를 만들어 방문객들이 앱, 플랫폼 등 핀테크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5일, 금융혁신 빅데이터센터에서 금융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된 12개사 및 금융혁신 분야 전문가와 함께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전북 국립종자원, 벼 보급종 6품종 2,634톤 신청·접수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병준)에서는 2023년산 벼 정부보급종과 관련, 지난달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 까지 전북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포함)와 읍·면·동 주

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신품종으로 참동진, 안평벼가 공급된다. '참동진'은 신동진의 우수한 밥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 저항

성은 향상된 품종이다. '안평벼'는 농진청 선정 최고품질벼로 선정되어 밥맛이 가장 뛰어나다. 공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종자는 수송지시 이후 신청내역(품종, 수량 등)에 대하여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하다. 변경 및 취소로 발생

되는 손실(종자 대금, 대한문운 운송비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 농가에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울러, 신청한 종자는 정선 및 출고 전 발아를 검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년 3월까지 생활, 수송, 산업 등 6개분야 15개 중점과제 추진

전북도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고 농도가 높은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처음 시작했으며, 올해 5번째로 시행된다.

지난 4차례(2019~2022년)에 걸친 계절관리제 효과는 제도 시행 전인 2018년 겨울철 보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으로 전국 평균 27.5%(33.4~42.2 μg/m³)의 개선효과를 거둔 바 있다.

전북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생활·수송·산업 등 6개 분야 15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영농잔재물 및 폐기물 불법소각 등 생활성연소 단속강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강화 △관급사업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도내 집중관리도로 166.8km에 대한 도로청소 강화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오염우려 사업장 감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73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당일엔 시행되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작업시간 조정이 비상저감조치 하루 전 예비저감조치로 시행된다.

또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에서만 시행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이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모든 특·광역시로 확대돼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해당지역에서 운행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전북지역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5등급인지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이나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알 수 있으며, 5등급 차량은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단속에서 제외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